

2018년도

동쪽 치패 방류 완료 보고



2018 동족 치패 방류 원료 보고

최근 연안 어장의 황폐화, 이상기후 현상, 남획 등에 의하여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대량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동족 자원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I 방류 개요

- 방류 일정 : 2018. 10. 29(월)
- 방류 지역 :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
- 방류 수량 : 45만미
- 방류 품종 : 동족 치패
- 종패 크기 : 각장 1.4cm 내외
- 방류 방법 : 어선으로 방류지역까지 이동하여 방류

II 참석자

- 연구소 : 담당 연구사 및 직원
- 어촌계 : 어촌계 계장 및 계원

III

방류 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 평균 각장 1.4cm 내외 치패 30마리/7.0g 마리당 0.2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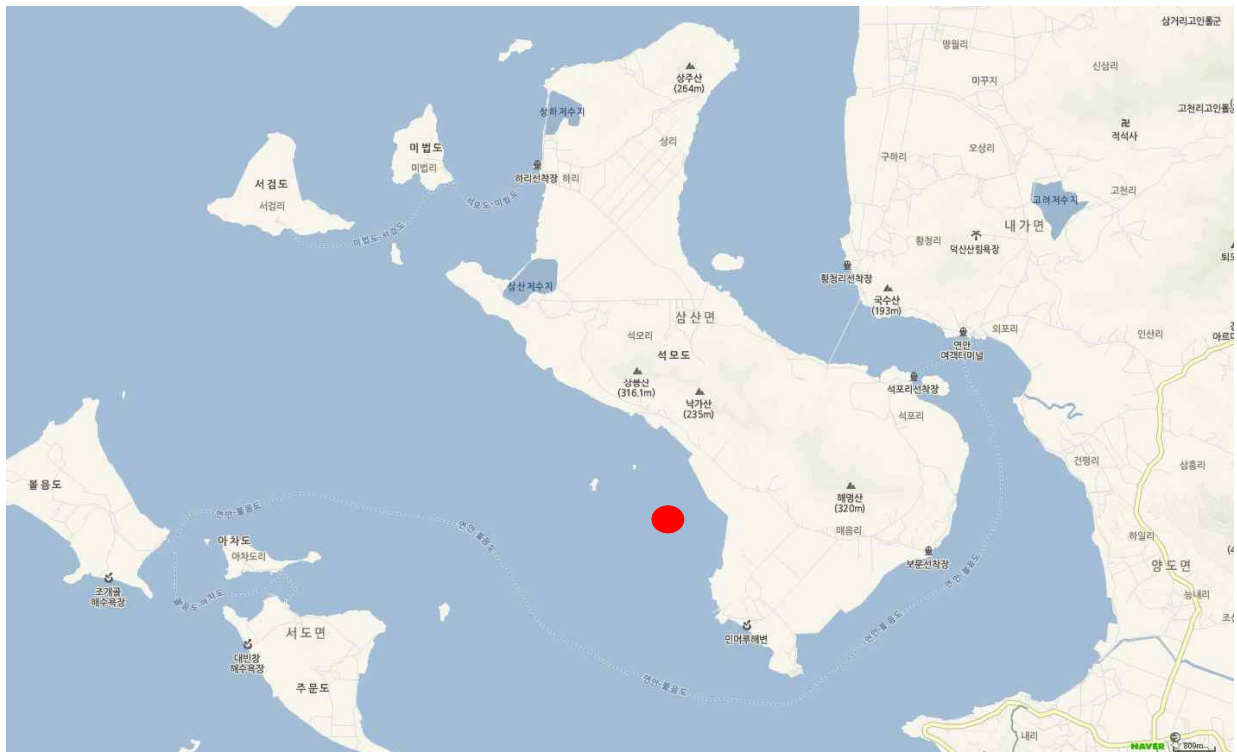
○ 방류수량 검수

계량 회수	총무게(g)	마리당 평균 무게(g)	검수량
5회	103,600	0.23	450,434

IV

방류 해역도

○ 동쪽 치패 방류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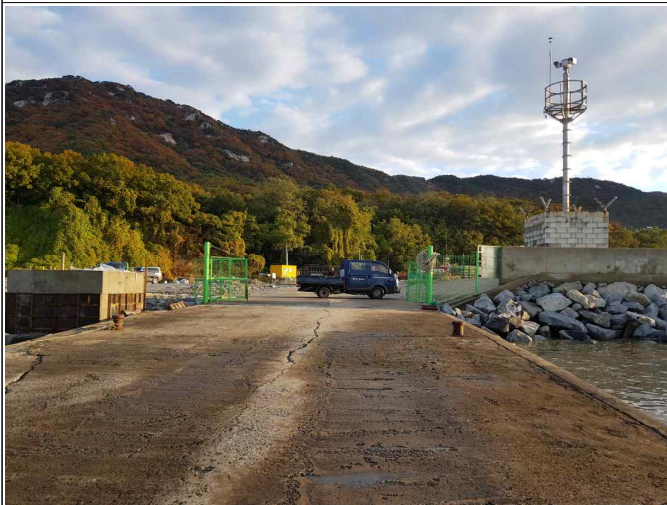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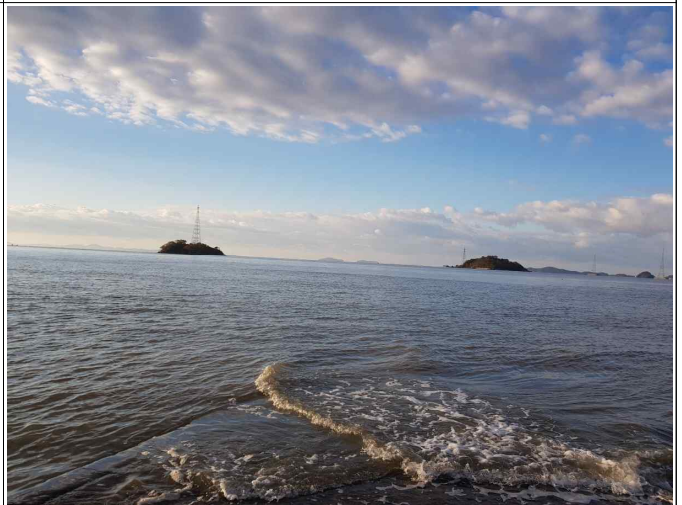
수조에 사육중인 동족 치패



수거된 동족 치패



방류지역 도착 및 방류 준비



방류 예정 지역 모습



방류 준비 작업



동족 치패 방류 작업



☰	뉴스	중도TV	전국	오피니언	비주일	핫클릭	스포츠	PDF
사설 세상읽기 편집국에서 중도시평 시사오디세이 세상보기 문화칼럼								

현재위치 : 홈 > 전국 > 경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동족 치패 45만미 방류

동족 중간양성 기술 개발...지속적 체계적 방류 예정

입력 2018-10-29 09:43 수정 2018-10-29 09:43



동족 치패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29일 이상기 후현상 등으로 동족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자원량 회복을 위해 동족 치패 45만미를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동족은 예전에는 싸고 흔해 '동죽'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몸값이 높아졌다. 물속에서 관을 쭉 빼고 물을 쏘아 '물총조개'라고도 불리며, '물총탕', '물총칼국수' 등의 메뉴로 식당에서 인기가 높다.

동족은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고, 겉면이 색깔은 회백색이며 겉표면은 나이트처럼 생긴 줄이 많이 나 있으며 까끌까끌하고 살은 매우 연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특히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해 속풀이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동족 중간양성 기술을 개발하며 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해역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류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인기 콘텐츠



대전시, 내전보양 등 재난관리기금 확대



해고 빌미로 부양이익 절감 배스회사 대표 걸거



[내일날씨]와 '추위' 관련으로 알려진 가을...



완벽한 룬패딩을 위한 혁신 NEW 벤치다운

인천수산자원연구소, 동족 치패 방류

박종서 기자 | 입력 : 2018-10-29 09:41 | 수정 : 2018-10-29 09:41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하여 동족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29일 동족 치패 45만마를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싸고 흔해 '동족'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몸값이 높아졌다. 물속에서 관을 쪽 빼고 물을 쓰아 '물총조개'라고도 불리고, '물총탕', '물총칼국수' 등의 메뉴로 식당에서 인기가 높다.



동족 [사진=인천수산자원연구소]

STEEL & METAL KOREA 2018

제5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국내유일 철강 및 비철금속 전문전시회

2018. 10. 31 - 11. 2 KINTEX

HOME > 지역본부 > 인천

인천시 수자원연구소 '동죽' 자원 회복 위해 치패 방류

조동욱 기자 | 입력 2018-10-29 09:42 | 승인 2018.10.29 10:17 | 댓글 0 | 언어 선택 | Google 번역에서 자동

[일요서울 | 인천 조동욱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하여 동죽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29일 동죽 치패 45만미를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동죽'

예전에는 싸고 흔해 '동죽'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몸값이 높아졌다. 물속에서 관을 쭉 빼고 물을 쏘아 '물총조개'라고도 불리고, '물총탕', '물총칼국수' 등의 메뉴로 식당에서 인기가 높다.

동죽은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고, 겉데기 색깔은 회백색이며 겉표면은 나이테처럼 생긴 줄이 많이 나 있으며 까끌까끌하다. 동죽 살은 매우 연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특히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해 속물이에 매우 좋다.

신청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동죽 중간

일요서울 TV

생생연예포토



[스포츠] 유방암 인식

구해줘 네모



#프랜차이즈 #사무실

오늘의 인기콘텐츠





민영뉴스통신사 (NBN News Agency)

내외뉴스통신

HOME > 전국 > 경기인천

인천수산자원연구소 동죽 치패 45만미 방류

✎ 김형만 기자 | Ⓞ 승인 2018.10.29 10:57 | ⇄ 댓글 0



▲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에 방류한 동죽 치패(사진제공= 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하여 동죽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10월 29일 동죽 치패 45만미를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 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싸고 흔해 '똥죽' 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물값이 높아졌다. 물속에서 관을 쪽 빼고 물을 쓰아 '물충조개' 라고도 불리고, '물충탕', '물충칼국수' 등의 메뉴로 식당에서 인기가 높다.

네모엔 많던데?
 #권리금_없는_상가 #인테리어_완비
 #소규모사무실 #공유사무실

사회 > 지역

+ -

인천시, 동족 치패 방류...동족 자원량 회복

최종수정 : 2018-10-29 14:07:09



▲ (사진/인천시)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동족 자원량이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자원량 회복을 위해 29일 동족 치패 46만미를 강화군 삼산면 대송도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29일



전에는 사고 흔해 '동족'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서해안 연안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특값이 높아졌다. 물속에서 끈을 꼭 빼고 물을 쏘아 '물총뜨개'라고도 불리고, '물총탕', '물총칼국수' 등의 메뉴로 식당에서 인기가 높다. 동족은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고, 갈데기 색깔은 회색이며 겉표면은 나이테처럼 생긴 줄이 많이 나 있으며 까끌까끌하다. 동족 살은 매우 연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특히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해 속풀이에 매우 좋다.

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동족 중간양성 기술을 개발해 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해역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류 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